

융복합 시대 초산모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현진¹, 채미영^{2*}

¹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fluencing Factors on Mother-to-infant Attachment in first time Mothers under in Convergence Era time Mothers

Hyunjin Kim¹, Miyoung Chae^{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의 모아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S 시의 초산모 148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통계분석에는 기술통계와 t-test, ANOVA, 상관관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모아애착은 산모 피로도($r=-.65, p<.001$) 및 불안정도($r=-.62, p<.001$) 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초산모의 모아애착에는 산모 피로도($\beta=-.52$), 불안정도($\beta=-.48$), 육아도우미 유무($\beta=.10$)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은 64.3%($F=89.19, p<.001$)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초산모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반으로 산모 피로와 불안감을 줄이고 모아애착을 향상시키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모아애착, 피로, 불안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intervention development programs that could improve the attachment of first-time moth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48 Primipara Women in S city from April 1 to May 31, 2021. Data were proces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mother-to-infant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fatigue($r=-.65, p<.001$) and anxiety level($r=-.62, p<.001$). Maternal fatigue($\beta=-.52$), anxiety level($\beta=-.48$), Child care assistant($\beta=.10$) affect the attachment of first-time mothers. Mother-to-infant attachment the total explanation power was 64.3%($F=89.19, p<.001$).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reduce maternal fatigue and anxiety level based on factors affecting the mother-to-infant attachment of first-time mothers and improve the ability of the mother-to-infant attachment.

Key Words : Convergence, Attachment, Fatigue, Anxiety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Chae(mychae@kwu.ac.kr)

Received June 24,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July 19,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경제활동에 있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다[1]. 여성의 많은 사회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사와 육아와 같은 가정 내 역할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은 가정 내 육아 역할도 잘 해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결혼 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기 바라는 현대사회의 이중적인 풍토에 놓여 있다[1]. 즉, 여성은 사회진출과 함께 그와 관련된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2]. 출산율의 저하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빠른 산업화와 더불어 모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독신 증가와 늦은 결혼,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 핵가족화 같은 사회 문화적 변화가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고 하고[3], 분만과 육아를 큰 부담으로 느끼게 한다.

어머니의 역할은 출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모성이 모성역할에 적응 한다는 것은 산모가 스스로 어머니임을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4]. 이러한 모성 역할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이의 돌봄이 원활히 되겠지만[5], 개인에 따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초산모의 경우 모성으로서 역할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생애 처음으로 모성 역할을 수행하여 긴장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모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기와의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모아애착은 모성역할 획득의 일부분인 모성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로서 역할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7].

모아애착은 영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영유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말하며, 이 시기의 어머니와의 중요한 관계 형성은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아애착은 중요한 요소이다[8]. 또한,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정서나 심리적인 요인이 모아애착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 있다[8]. 그러나 불안, 산모 피로도 등의 신체·심리적 문제들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 중 초산모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드물다.

영아기 초기의 애착 형성은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애착 형성에 실패한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성은 물론 대인관계 형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게다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아기의 스트레스와도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감각적이고 적절한 반응은 아기의 스트레스

정도를 줄여 준다[10].

산욕 기간 동안의 피로는 산모에게 불안, 분노, 우울 등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11]. 이러한 산모 피로도는 초산모의 우울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며[12], 산모의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는 모아애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또한, 초기 산욕기 산모의 피로는 다른 양육 기간에 비해 높고, 출산 후 우울의 아주 유의한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초산모와 관련된 연구는 우울감[14], 유도분만 경험[15] 등의 연구가 있다. 초산모의 불안과 관련된 문헌은 초산모의 분만 중 불안을 감소시켜주거나, 분만 중 통증 감소 방법[16], 무통 분만이나 손 마사지 등을 통해 분만 중 불안을 완화하는 등[17]의 분만 중의 프로그램과 문헌이 대부분이다. 초산모와 관련된 모아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분만 경험과 관련된 모아 상호작용, 영아의 월령별 모아 상호작용, 수유 시 모아 상호작용 등[18] 오래된 문헌이 많다. 반면, 모아애착은 최근에 고위험 신생아와의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고위험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19]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산모를 대상으로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 모아애착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초산모의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가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모아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의 초산모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고 융복합 시대 초산모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임신 37주 이후 정상 신생아를 출산한 초산모, 내과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 등이 없는 자이다. 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신 37주 이전에 조산한 자, 전신질환 및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자이다. 본 연구 적정 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 선행 연구[20]를 근거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f2)를 0.15(medium)로 두고 predictor 14개를 고려하였을 때 적정 표본크기는 각 135명이 된다. 이에 탈락률 10%로 설정하여 총 150부를 배부하였고 완성되지 않은 2부를 제외하고 148부가 수거되어 분석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서울시 소재 산부인과 2곳에서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 다음 2021년 4월에서 2021년 5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보상, 익명성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에 관한 의문 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연구도구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불안정도, 모아애착, 산모 피로도,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연구 도구

2.3.1 불안정도

불안정도는 10점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척도로 측정하였다. 1점은 전혀 불안하지 않음에서 10점의 매우 불안함을 의미한다. 점수가 클수록 불안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2 산모 피로도

산모 피로 측정을 위한 도구는 Milligan 등[8]의 Fatigue Symptom Checklist(FSC)를 10문항으로 간소화한 피로도구(Shortened 10item fatigue scale)를 Song[21]이 번안한 도구를 도구 개발자와 번안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클수록 산모 피로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Song[21]의 연구에서 0.88, 본 연구에서는 .81 이었다.

2.3.3 모아애착

모아애착은 Müller[22]가 개발한 도구(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MAI)를 Choi & Shin[23]이 번안한 도구를 개발자와 번안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의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거의 항상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의 아기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Muller의 연구[22]에서 .85, Choi & Shin[23]의 연구에서 .89, 본 연구에서는 .84 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0.0(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 및 모아애착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 및 모아애착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48명으로 나이는 30~34세 이하가 59.5%(88명), 무교가 45.3%(67명), 학력은 대졸이 81.1%(120명), 월수입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6.4%(39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현재 직업 상태는 육아 휴직 후 복직 예정인 대상자가 31.1%(46명)이었고, 임신이나 출산을 계기로 사직한 대상자도 35.1%(52명)였다. 계획된 임신인 경우가 66.2%(98명)였고, 출산 전 기대한 성별인 경우가 54.1%(80명)로 많았다. 아기의 개월 수는 3-6개월인 경우가 57.4%(85명)였고, 현재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37.2%(55명), 육아도우미가 없는 경우가 69.6%(103명)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3.2 연구대상자의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 및 모아애착 정도

Table 1. General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30	30(20.3)	
	30~34	88(59.5)	
	≥35	30(20.3)	
Religion	Christian	35(23.6)	
	Buddhism	19(12.8)	
	Catholic	22(14.9)	
	Atheism	67(45.3)	
	Others	5(3.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4.1)	
	College	120(81.1)	
	Graduate school	22(14.9)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1.4)	
	200~299	32(21.6)	
	300~399	39(26.4)	
	400~499	37(25.0)	
	≥500	38(25.7)	
Plan for back-to-work	Housewife	31(20.9)	
	Pregnant and resigned	35(23.6)	
	Giving birth and resigning	17(11.5)	
	Will be reinstated after maternity leave	19(12.8)	
	Will be reinstated after parental leave	46(31.1)	
Planned pregnancy	Yes	98(66.2)	
	No	50(33.8)	
Expected baby gender	Yes	80(54.1)	
	No	43(29.1)	
	Have never thought	25(16.9)	
Baby age (month)	0~1	18(12.2)	3.90±1.80
	2~3	45(30.4)	
	3~6	85(57.4)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41(27.7)	
	Bottle feeding	55(37.2)	
	Mixed	52(35.1)	
Baby's care assistance	Yes	45(30.4)	
	No	103(69.6)	

대상자의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 모아애착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불안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60±2.69점이었다. 산모 피로도는 4점 만점에 2.22±.63점이었고, 모아애착은 5점 만점에 3.44±.52점이었다.

Table 2. Anxiety level, maternal fatigue, mother-to-infant attachment (N=148)

Variables	Items	M	SD	Range
Anxiety level	1	3.60	2.69	1-10
Maternal fatigue	10	2.22	.63	1-4
mother-to-infant attachment	26	3.44	.52	1-5

3.3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 따른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 및 모아애착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 산모 피로도, 모아애착 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계획된 임신여부($F=-2.53, p=.012$)에 따라 산모 피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획된 임신인 경우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보다 산모의 피로도가 높았으며, 아기의 성별이 남아일수록 여아보다 산모의 피로도가 높았다. 육아도우미 유무($F=-2.02, p=.045$)에 따라 모아애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육아도우미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모아애착이 높았다.

3.4 대상자의 불안정도, 산모피로도 및 모아애착의 관계

대상자의 불안정도, 산모피로도, 모아애착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불안정도와 피로도($r=.28, p<.001$)는 서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안정도와 모아애착($r=-.62, p<.001$), 피로도와 모아애착($r=-.65, p<.001$)이 서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불안정도가 낮고, 피로도가 낮을수록 모아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불안정도와, 산모 피로도가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모아애착을 종속변수로 하고 모아애착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변수인 육아도우미 유무와 독립변수인 불안정도와 산모 피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변수인 육아도우미 유무는 명목적으로 이 변수를 더미화하여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은 1.006~1.078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값이 1.539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또한, 공차한계가 .99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이 64.3%를 나타내었으며, 초산모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모 피로도($\beta=-.52, p<.001$), 불안정도($\beta=-.48, p<.001$), 육아도우미 유무로 나타났다($\beta=.11, p<.05$). 잔차분석 결과에서도 모형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였다. 따라서 회귀식의 모든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모아애착 모형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89.19, p<.001$)(Table 5).

Table 3. Anxiety level, maternal fatigue, mother-to-infant attach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8)

Variables	Categories	n	Anxiety level		Maternal fatigue		Mother-to-infant attachmen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r)	<30	30	2.97±2.11	1.99 (.141)	2.53±.60	.10 (.909)	3.51±.50	.65 (.525)
	30-34	88	3.57±2.60		2.20±.65		3.43±.54	
	≥35	30	4.33±3.28		2.24±.62		3.36±.47	
Religion	Christian	35	2.94±2.16	1.05 (.385)	2.21±.64	.54 (.704)	3.46±.37	1.38 (.243)
	Buddhism	19	3.74±2.68		2.09±.53		3.43±.54	
	Catholic	22	4.18±3.23		2.36±.67		3.29±.65	
	Atheism	67	3.63±2.69		2.23±.65		3.50±.51	
	Others	5	4.80±3.42		2.06±.65		3.07±.6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	1.67±.52	1.78 (.173)	2.07±.65	.23 (.797)	3.59±.30	.28 (.759)
	College	120	3.63±2.69		2.23±.62		3.43±.54	
	Graduate school	22	3.95±2.85		2.19±.71		3.43±.45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	2.50±0.71	1.00 (.408)	2.40±.99	.28 (.893)	3.65±.38	.67 (.611)
	200~299	32	3.38±2.62		2.28±.62		3.36±.47	
	300~399	39	3.05±2.37		2.24±.62		3.51±.50	
	400~499	37	4.08±2.89		2.23±.63		3.37±.58	
	≥500	38	3.95±2.86		2.14±.68		3.48±.52	
Plan for back-to-work	Housewife	31	4.00±2.99	.37 (.828)	2.38±.63	.68 (.604)	3.33±.60	1.66 (.164)
	Pregnant and resigned	35	3.31±2.46		2.13±.64		3.62±.40	
	Giving birth and resigning	17	3.29±2.85		2.21±.51		3.41±.46	
	Will be reinstated after maternity leave	19	3.42±2.89		2.21±.73		3.33±.59	
	Will be reinstated after parental leave	46	3.74±2.56		2.19±.64		3.42±.50	
Planned pregnancy	Yes	98	3.32±2.49	-1.82 (.070)	2.13±.62	-2.53 (.012)	3.49±.49	1.91 (.058)
	No	50	4.16±2.99		2.40±.62		3.32±.55	
Expected baby gender	Yes	80	3.58±2.57	.01 (.989)	2.16±.61	1.62 (.201)	3.51±.49	2.21 (.123)
	No	43	3.65±2.79		2.23±.65		3.39±.56	
	Have never thought	25	3.60±2.94		2.42±.67		3.29±.51	
Baby age (month)	0~1	18	3.61±2.43	.01 (.991)	2.19±.61	.03 (.972)	3.36±.61	.36 (.697)
	2~3	45	3.64±2.81		2.22±.63		3.41±.50	
	3~6	85	3.58±2.70		2.23±.65		3.46±.51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41	3.27±2.54	.48 (.622)	2.23±.67	.14 (.868)	3.49±.53	.50 (.609)
	Bottle feeding	55	3.65±2.74		2.25±.61		3.45±.50	
	Mixed	52	3.81±2.76		2.18±.64		3.38±.52	
Baby's care assistance	Yes	45	3.84±2.82	.73 (.468)	2.30±.64	1.03 (.303)	3.30±.54	-2.02 (.045)
	No	103	3.50±2.63		2.19±.63		3.49±.5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nxiety level, maternal fatigue and mother-to-infant attachment (N=148)

Variables	Anxiety level r(p)	Maternal fatiguer(p)	Mother-to-infant attachmentr(p)
Anxiety level	1		
Materna fatigue	.28 (<.001)	1	
Mother-to-infant attachment	-.62 (<.001)	-.65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other-to-infant attachment (N=148)

Variables	B	SE	B	t	p
(constant)	116.43	3.50		33.23	<.001
Maternal fatigue	-.95	.09	-.52	-10.10	<.001
Anxiety level	-2.38	.26	-.48	-9.33	<.001
Child care assistant	3.04	1.43	.10	2.12	.036

R²=.650, Adjusted R²=.643, F=89.19(p<.001), Durbin-Watson= 1.54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초산모의 모아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모아애착,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산모의 피로도, 불안정도, 일반적 특성의 육아도우미 순으로 논의하겠다.

본 연구에서 모아애착은 5점 만점에 3.44점으로 중간 이상이였다. 이는 Kim 등[2]의 연구에서 3.53점인 것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는 Kim 등[2]의 연구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애착을 측정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6개월 미만의 초산모가 대상이므로 인구변수학적 차이로 인해 모아애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 양육의 모든 과정에서 아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모아애착은 아기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므로[9, 10], 모아애착이 낮은 시기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기의 월령에 따른 모아애착 정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모아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산모 피로도로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2.22점이었고, 피로도 합계의 평균은 22.48점이였다. 이는 질식분만 한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Song[21]의 연구에서 피로도 합계의 평균이 57.21점을 나타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였다. 이는 Song[21]의 연구는 분만 후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만 후 가장 피로를 호소할 때 조사한 연구이며, 아기와 모자동실을 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피로도가 급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산모의 피로도는 모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 피로도가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아애착 향상을 위하여 산모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집안일이나 아기를 돌보는 일을 덜어주는 것도 산모의 신체적 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산모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로도 다음으로 모아애착에 미치는 요인은 불안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초산모의 불안 점수는 10점 만점에 3.6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을 VAS 척도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와 비교는 힘들지만 중간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 불안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불안이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적인 환경요인보다 산모 자신의 내적 심리적 상태인 성향도 모아애착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낮았다. 그러므로 초산모가 불안한 정서적 상태를 안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모아애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산모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AS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불안의 요소를 더욱 세분화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불안 감소를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이나 배우자나 남편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불안정도 다음으로 일반적인 특성의 육아도우미 유무였다. 육아도우미가 있을 경우 모아애착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산모 육아를 도와주는 도우미 여부에 따른 모아애착 형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육아도우미가 모아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초산모의 모아애착 향상을 위해서는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사업 등으로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다면 산모의 신체적인 피로를 덜어주어,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여유가 늘어나 모아애착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육아도우미 지원 제도는 소득제한이나 다문화, 다자녀 등 상황적인 제외 변수가 많으므로 더욱 완화된 제도적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초산모가 긍정적 모아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산모의 피로도와 불안을 낮추기 위한 육아도우미 지원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되며, 이는 모아애착을 형성을 위한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모는 신체적인 회복이 필요함과 아기 돌봄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의 가정간호 요구가 높으므로[24] 가정방문을 통한 중재 프로그램도 고려해야 한다. 산모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은 모아애착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정서의 미래세대 양성에 중요한 과제이며[2], 출산 후 양육은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더 이상 개인이나 부부 등의 일차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초산모의 모아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아애착에 산모 피로도, 불안정도, 육아도우미 유

무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모아애착에 산모 피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초산모의 아기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인 모아애착 향상을 위해 산모의 피로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지지적 체계나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건강한 양육에 있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양육을 처음 경험하는 초산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 중심의 양육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산모뿐 아니라 경산모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산모 피로도, 불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육아도우미 유무는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반복 연구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초산모의 모아애착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S. Moom. (2017).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the gender role attitudes in conjug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1(2), 191-232.
- [2] J. E. Kim, M. O. Yi & S. J. Lee. (2020). Effect of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maternal role adaptation of employed mothers in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79-88. DOI:10.14400/JDC. .2020.18.6.379
- [3] H. Y. Kim & C. S. Moon. (2014). Integrated care center for high risk pregnancy and neonate: an analysis of process and problems in obstetrics.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25(3), 140-152.
- [4] R. Rubin. (1976). Maternal tasks in pregnan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1(5), 347-376.
- [5] Y. S. Chae. (2005).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primiparas during early postpartum period*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68p.
- [6] H. N. Oh. (2017).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and practice of parent role father and mother with first child in infanc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9(4), 143-70.
- [7] C. Pazzag, L. Laghezza, M. Capurso, C. Sommella, F. Lell & C. Mazzeschi. (201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fear of childbirth in nulliparous and parous women. *Journal of Infant mental health*, 36(1), 62-74. DOI:10.1002/imhi .21483
- [8] J. E. Song & J. A. Ahn. (2013).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in Kore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3), 129-141. DOI: 10.4069/kjwhn.2013.19.3.129
- [9] C. G. Mooney. (2009). Theories of attachment: an introduction to bowlby, ainsworth, gerber, brazelton, kennell, and klaus. *Young Child*, 65(3), 197.
- [10] E. Z. Tronick.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2), 112-119. DOI: 10.1037/0003-066X.44.2.112
- [11] R. T. Mercer & L. O. Walker. (2006). A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s to foster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5(5), 568-582. DOI: 10.1111/j.1552-6909.2006.00080.x
- [12] C. L. Dennis & L. Ross. (2005). Relationships among infant sleep patterns, maternal fatigue, and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Birth*, 32(3), 187-193. DOI:10.1111/j.0730-7659.2005.00368.x
- [13] Y. H. Kim. (2020). A Study of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with postpartum depression. *Korean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13(2), 77-112. DOI:10.47801/ KJIMH.13.2.4
- [14] J. E. Song & J. M. Ko. (2016). Influencing factors on maternal role adjustment among the primipara women in the first year after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3), 284-296. DOI: 10.21896/jksmch.2016.20.3.284
- [15] Y.J. Kim, H. R. Lee & G. S. Park. (2017). Experience of korean primipara womens induction of labor.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8(2), 209-219. DOI: 10.22284/qr.2017.18.2.209
- [16] J. H. Oh, H. J. Lee, Y. K. Kim, J. Min & K. O. Park. (2006). The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and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delivery-recovery room on primiparas' anxiety, labor pain and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2), 145-156.
- [17] S. I. Jeon & M. K. Park. (2015). Effects of a spouse's hand massage on anxiety, spouse support and the perception on childbirth experience of a primipara with analgesia for vaginal delivery.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19(2), 233-242. DOI: 10.21896/jksmch.2015.19.2.233
- [18] K. S. Bang & K. J. Han. (1991).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primipara mother-infant interaction by infant's age in month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1(2), 150-167.
- [19] H. S. Choi & Y. H. Shin. (2013). Effects on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confidence of systematic information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3), 207-215.. DOI: 10.4094/chnr.2013.19.3.207

- [20] J. E. Kim, M. Kim, & S. J. Yi. (2020). Effect of maternal-fetal attachment an social support on the maternal role adaptation of employed mothers in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79-388.
DOI: 10.14400/JDC.2020.18.6.379
- [21] J. E. Song.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postpartum women's fatigue between rooming-in and non rooming-in group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3), 241-255.
- [22] M. E. Müller. (1994). A questionnaire to measure mother-to-infant attachment.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2(2), 129-141.
DOI: 10.1891/1061-3749.2.2.129
- [23] H. S. Choi & Y. H. Shin. (2013). Effects on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Confidence of Systematic Information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3), 207-215.
DOI: 10.4094/chnr.2013.19.3.207
- [24] X. Xiao, F. W. Ngai, S. N. Zhu & A. Y. Loke. (2019). The experiences of early postpartum Shenzhen mothers and their need for home visit services: a qualitative exploratory study. *BMC Pregnancy & Childbirth*, 20(1), 1-12.
DOI: 10.1186/s12884-019-2686-8

김 현 진(Hyunjin Kim)

[정회원]



- 202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전공(간호학 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 고위험 임부, 영유아 및 아동, 모유수유
- E-Mail : halmeni@hanmail.net

채 미 영(Miyoung Chae)

[정회원]



- 2003년 2월 : 아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1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전공(간호학 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 고위험 임부, 모유수유
- E-Mail : mychae@kwu.ac.kr